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11강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37-50장)는 앞의 이야기들처럼 약속-성취의 중심 주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출애굽 사건을 예비하고 있다(출애굽 사건의 배경/ 족장사와 출애굽 사건을 연결하는 교량). 꿈과 기근의 주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계시 또는 직접적인 약속, 지명이나 관습의 어원론적인 풀이 등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1. 요셉과 그의 형들(37장)

1) 요셉(출생=30:22-24)과 형들 사이의 갈등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1) 17세의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했다(2절). (2)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여 그에게만 채색옷(고귀한 신분 상징; 삼하 13:18-19)을 지어 입혔다(특별 대우, 3절). 요셉은 형들처럼 고된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그 대신에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것을 야곱에게 보고하는 일을 맡았다(14절). (3) 요셉의 꿈 이야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함(6-7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함(9절). 형들은 이상의 이유들로 하여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였다(4, 8, 11절).

2)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세겜을 거쳐 도단으로 간다. 형들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짐으로써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고 모의한다(18-20절). 만형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고 제안하여 그렇게 하지만(21-24절), 유다는 그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제안하여 요셉은 마침내 20(성장기의 남자 노예 값=레 27:5)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다(25-28절). 이때 요셉은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42:21) 소용이 없었다.

3) 뒤늦게 요셉이 팔린 것을 알게 된 르우벤은 만형으로서의 책임에 괴로워하지만(29-30절), 나머지 형제들은 자기들의 악행을 은폐할 대책을 의논한 끝에 숫염소의 피를 채색옷에 묻혀 짐승에게 먹힌 것처럼 하자고 결론 내린다(31-32절). 지난날에는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염소(히브리어로 '에즈'=27:16) 가죽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숫염소(히브리어로 '에즈')를 죽여 그 피를 가지고서 그를 속이려고 했다. 비통해 하는 야곱(33-35절),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린 요셉(36절).

2. 유다와 다말(38장)

1)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와 별다른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이 이곳에 실려 있는 것은 다윗 왕조와 관련된 유다 지파의 기원이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맥락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요셉의 유년 시절(37장)과 애굽에서의 새로운 삶(39장) 사이에 있는 틈새야말로 다소 이질적인 유다의 이야기를 넣는 데 가장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스라엘의 다말(38장)과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집트 여인(39장, 보디발의 아내)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2) 유다는 팔레스타인 중앙 고원 지대에 있는 아둘람에 정착하였고, 히라를 친구로 삼으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아 엘, 오난, 셀라 등을 낳는다(1-5절). 엘은 다말과 결혼하였으나 악을 행한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6-7절). 오난은 수혼(媾婚; levirate marriage) 규정(신 25:5-10; 룩 4:1-6; 마 22:23-33)에 의해 형의 후사(heir)를 낳아야 했으나, 수음(手淫) 행위를 통해 형수와 관계를 중단함으로써 역시 심판을 받아 죽는다(onanism). 유다는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여 과부가 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다(8-11절).

3) 유다는 아내가 죽자 친구인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갔고 거기서 창기로 변장한 다말과 관계하게 된다. 다말은 셀라와의 관계가 불가능해졌음을 알고서 유다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잇고자 했다(중족 보존, 12-14절). 유다는 화대(花代)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제의했고 다말은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다(일종의 신분증, 15-18절). 유다는 염소 새끼를 보내어 담보물을 찾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3개월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화형에 처할 것을 명한다(19-24절). 다말의 항변과 유다의 시인(25-26절).

4) 후대(後代)의 이스라엘은 상속자를 얻기 위해 명예와 목숨까지도 내건 다말의 용기와 지혜를 찬양한다(룩 4:12). 그녀는 시아버지에 의해 말살될 뻔했던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 것이다. 26절은 다말이 악했다고 말하지 않고(비교, 엘과 오난; 7, 10절=‘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그 대신에 유다의 입을 통해 그녀가 유다보다 더 의로웠음을 인정한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아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로 정하였다(27-30절).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출생한다(룩 4:18-22; 마 1:3; 비교, second-son motif).

3. 유혹을 이겨낸 요셉(39장)

1)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한 채로 먼 이방 나라에 와서 종살이하는 일이 요셉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정직과 순종함으로 본을 보였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일이었다(2-3절=보디발의 집/ 21, 23절=감옥). 요셉의 순전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된 보디발은 그를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다.

2)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함은 요셉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집까지 미쳤다(12:2-3 참조). 이에 보디발은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먹을거리를 제외(히브리인과

함께 먹으면 부정하다는 생각, 43:32)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6절). 요셉의 신앙적인 매력은 그에게 형통함과 복을 가져다주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매력(성품, 용모)은 그를 큰 위기에 빠지게 했다. 보디발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쉬크바 임미’=Lie with me!/ 강조 명령;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자야 한다!’라고 동침하기를 명했으며(7절), 날마다 그러했다(10절).

3) 요셉은 여주인의 명을 거역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8-9절)에서,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간음)할 수 없다는 생각(9절)에서 그녀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하루는 요셉이 자기 옷을 붙들고서 ‘쉬크바 임미’라고 외치는 주인 마님을 뿌리쳤는데, 성적인 욕망을 채우지 못한 그녀는 구겨진 자존심을 구실로 증오심과 보복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검탈죄를 씌워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했다(11-18절).

4)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아내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를 감옥에 넣었으나 사형에 처하지 않고 또 일반 죄수가 아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둠으로써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19-20절). 노예 신분의 요셉은 억울해도 항변할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부당한 감옥 생활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고, 그 결과 형통함을 입을 수 있었다.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감옥의 제반 행정 사무를 총괄하기까지 했다(22-23절).

4. 감옥에서 왕궁으로(40-41장)

1)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이 갇힌 지 얼마 후에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은 아마도 왕권에 도전하려는 일종의 역적 모의(‘애굽 왕에게 범죄’=1절)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고위직에 있다는 사실이나 그들이 왕의 죄수들, 곧 국사범(國事犯)을 가두는 보디발의 가내(家內)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그 점을 암시한다.

2) 보디발은 그들을 요셉에게 맡긴다(재신임, 4절). 두 관원장은 같은 밤에 서로 다른 이상한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길이 없어 근심한다(5-7절). 꿈은 신들의 자기 계시 수단으로 이해되었는데, 꿈속에서 직접 구두(口頭) 메시지가 전해지면 별 문제가 없었으나 구두 메시지 없이 그냥 눈으로 어떤 광경을 보기만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해석자가 필요했다. 애굽에서는 주술이나 마술을 행하거나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41:8)이 꿈을 해석한다고 보았으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8절).

3) 요셉은 먼저 술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사흘 후에 복직될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앞으로 잘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9-15절). 그러나 떡 관원장의 꿈은 그가 사흘 후에 목 베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16-19절). 요셉의 해석은 사흘 후 바로의 생일(국가적인 축제일)에 이루어진 특별 사면(술 관원장)과 처형(떡 관원장)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다(20-22절). 그러나 복직된 술 관원장은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다(23절). 약속 성취의 지연=술 관원장의 망각(권한 밖의 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4) 요셉이 애굽에서 겪는 두 번째 꿈 이야기(41장)는 요셉 이야기 전체의 핵심 부분에 속한다 (꿈의 성취/ 가족 상봉의 길이 열림). 41장은 요셉 개인의 운명이 전환점을 맞고 있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사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첫 번째 꿈 이야기(40장)가 개개인(관원장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꿈 이야기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5) 바로는 두 관원장의 꿈이 성취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일곱 마리의 암소에 관한 꿈과 일곱 개의 이삭에 관한 꿈을 꾀다(1-7절). 이 두 꿈은 유목(암소)과 농업(이삭)을 양대 기둥으로 하는 애굽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다. 바로는 꿈을 꾀 후 불길한 느낌을 강하게 받고서, 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러 그 뜻을 물었으나 누구도 해석을 못했다(8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기 때문이다(비교, 단 2장의 느부갓네살).

6) 술 관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갚을 겸 바로의 신임을 얻고자 요셉을 추천했고 요셉은 정장한 모습으로 바로에게 나아간다(10-14절). 바로가 자신을 직업적인 꿈 해석자로 일컫자(‘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은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다고 답변한다(15-16절=40:8/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은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는 바로에게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바로의 신권(神權)을 부정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꿈 해석과 관련된 애굽의 종교를 철저하게 배격하신다(=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

7) 바로의 꿈 이야기(17-24절)를 들은 요셉은 그 꿈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25-31절), 극심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했다(32-36절). 요셉의 제안은 인재 등용과 곡물 관리(저장)로 압축되는 바, 인재 등용이 더 중요했다. 부패하고 무능하거나 뇌물에 밝은 사람이 것처럼 중요한 일을 맡는다면 풍년 관리가 도무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바로는 요셉이야말로 앞으로 닥칠 국가적인 재난을 잘 관리할 책임자라 판단하고서(‘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38-39절) 애굽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30세(46절) 밖에 안 된 그를 총리직에 임명함으로써 그에게 국가 통치의 전권을 위임했던 것이다(37-43절).

5. 형제들과의 만남(42-45장)

1) 바로는 이방 사람/노예/죄수(30세)이던 자를 총리로 임명했던 까닭에 이방인을 배척하는 애굽인의 정서를 고려하여 요셉의 총리직에 합법성(정통성)을 부여하고자 (1) 히브리식 이름(요셉)을 애굽식 이름 사브낫 바네아(God speaks and he lives)로 바꾸고, (2) 그를 애굽 여인과 결혼시켰다(44-45절). 온(On)=헬리오폴리스(Heliopolis). 요셉은 부득이하게 애굽 문화와 종교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두 아들의 히브리식 이름, 50-52절).

2) 므낫세: 하나님이 온갖 고난(노예, 감옥)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음을 찬미. 에브라임: 하나님이 고생하는 애굽 땅에서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음을 감사. 쓰라린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미래를 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요셉(참조, 빌 3:13-14)/ 고난으로 가득 찬 옛 시대를 마감하시고서(므낫세) 번영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새 시대를 열어 주시는(에브라임) 하나님.

3) 요셉의 애굽 전역 순찰: 나라 안의 온갖 사정 파악/ 자신의 총리직 선포. 7년 흉년 동안의 수확물 저장(46-49절). 흉년 계속, 타국인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 판매(53-57절/ 창 12:1-3). 야곱은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까지도 잃을 수 없다 하여 그를 제외한 열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다(42:1-4). 타국인들(형들)은 중앙 공급처(요셉)에서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서 곡식을 사야 했다.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 요셉의 꿈 생각,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목적의 간첩죄 추궁(5-9절). 형들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그저 요셉을 닮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4) 형들의 결백 주장, 요셉의 지속적인 추궁, 결백 입증하려는 형들의 집안 얘기(10-13절): 요셉에 대해서는 단순히 '하나님 없었어'라고 얼버무리. 사흘간의 투옥(감옥에서 잘못 누우칠 계기 제공하려고, 14-16절). 사흘 후 요셉은 야곱이 받을 타격과 식량 운반 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한 명만 붙잡아 두겠다고 하고(17-20절), 형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관련 시킴으로써 요셉이 예견했음직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21-23절, 요셉의 '괴로움'과 그들의 '괴로움'). 르우벤은 요셉의 피값을 치루는 것이라고 그들의 지난 소행을 원망했다(22절). 요셉의 복 받치는 감정 억제, 시므온 결박, 곡식 자루에 돈을 그대로 넣음(24-25절).

5) 시므온을 남긴 채로 곡식을 가지고서 고향 길을 떠나는 야곱의 아홉 아들들(26절). 도중에 한 형제의 곡식 자루에 곡식 대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탄식함('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셨는고!'/ 28절; 과거의 죄에 대한 징벌).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29-34절). 요셉을 팔아넘기던 때처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6) 이야기를 마치고 곡식 자루를 비우던 그들은 모두의 자루에 곡식 대금이 있는 것을 알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35절; 간첩/도둑). 야곱의 충격: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었는데 이제 너희가 베냐민마저 빼앗아가는구나!'(36절). 장남 르우벤은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서 베냐민을 데려가 간첩 누명을 벗겠으며 시므온도 데려오겠다고 야곱을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36절에 의하면 그는 시므온도 요셉처럼 없어진 것으로 여기고자 한 듯하며(베냐민을 위해 시므온 포기), 아들들이 간첩/도둑 누명 벗는 일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애굽에서 사온 곡물마저 떨어져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아들들에게 곡물을 사오라고 말하지만, 베냐민에 대한 언급이 없자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여 야곱을 설득한다(1-5절). 야곱은 왜 애굽 총리에게 동생이 있다고 말하여 자기를 이토록 괴롭히느냐고 했지만, 그들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답변했다(6-7절).

8) 유다의 마지막 설득: (1)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8절)/ 베냐민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린 것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생사가 걸린 문제. (2)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 지 못하면 그 죄를 평생 달게 받겠다(9절). 애굽에 두 번 갔다 왔으리라는 유다의 항변(10절)/ 야곱의 굴복: 가나안의 토산품과 두 배의 돈을 가지고 가게 함(11-13절). ‘전능하신 하나님’(히브 리어로 ‘엘 샷다이’; 17장=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심/ 28:3=이삭이 야곱을 라반으로 보 낼 때/ 35:11=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벧엘에 머물렀을 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 한 긍휼(히브리어로 ‘라하임’; 개역은 ‘은혜’로 잘못 번역/ 모성애, 생명 보존, 생명 창조)의 간구 (14절).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인지 체념하는 투로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은 것이 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현실에 대한 체념이 뒤섞인 상황(믿음 의 한계).

9) 형제들(10명)의 재차 방문/ 청지기에게 점심 식사 준비를 명하는 요셉/ 두려워하는 형제들(고 귀한 신분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관례여서)/ 곡식 대금을 구실로 자기들을 체포하여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 청지기에게 자기들의 결백함을 강조(16-22절). 청지기의 위 로: ‘안심하라(‘샬롬 라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돈을 넣어 주 신 것이다’/ ‘돈은 이미 받았다’(22-23절). 요셉이 가장 신임하는 청지기/ 그에게 미친 요셉의 영 향력. 돈 문제의 해결, 시므온의 석방, 발을 씻게 함, 나귀에게도 먹이를 줌, 요셉에게 예물을 바 치고 절함(24-26절; 42:6에 이어 두 번째로 절함).

10) 그들의 안부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는 요셉/ 형제들의 답변/ 베냐민을 보고서 하나님께 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빈다고 말함/ 베냐민을 향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급히 자기 방으 로 가서 한참 울고 난 후에 다시 와서 식사를 같이 함(27-31절). 제의적인 정결과 관련된 애굽 사람들의 독특한 식사 습관 때문에 모두가 따로 식사를 한다. 나이순으로 배열된 형제들의 식탁, 다섯 몫이나 더 받은 베냐민(32-34절).

11) 식후에 요셉은 베냐민 체포 구실을 만들려고(형들이 정말 과거를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변 했는지를 확인코자) 청지기에게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돈도 자루에 다시 넣고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게 했다(1-2절). 점술과 관련된 은잔(5절; 물이나 술의 표면이 변화하는 모양으로 점을 침), 점술의 금지(레 19:26; 신 18:10; 사 19:3 등). 이튿날 아 침 일찍 형제들을 보냄, 청지기의 추격, 책망(은잔 도적질, 선을 악으로 갚았다), 형제들의 항변 과 맹세(흉친 자는 죽여도 좋으며 자기들은 요셉의 종이 되겠다; 6-9절).

12) 조건을 완화시킨 청지기의 타협안(은잔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보내겠다), 베냐민 이 적발됨, 옷을 찢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감(10-13절). 세 번째로 절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요 셉은 점술로 그들의 죄악(도적질)을 적발했음을 부각시킨다.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베냐민의 안 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요셉 매 매)을 적발하셨으니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말한다(연대 책임). 과거에는 요셉을 판 후에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는 달라졌다(14-16절).

13) 요셉은 전부 다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16절)에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 지는 가도 좋다고 답변한다(17절=10절/청지기의 말). 형제들은 베냐민을 두고서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요셉을 팔고서 아버지를 속인 과거의 비뚤어진 양심으로부터 변화된 그들

의 양심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연대 책임=9, 16절). 유다의 탄원(18-34절)이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14) 유다는 요셉이 화낼까봐 부당한 간첩 혐의와 시므온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하지 않고 야곱과 베냐민에 대해서만 말한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 요셉의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 하는 것. 탄원의 요지: 베냐민은 노년에 낳은 아들, 야곱은 그를 끔찍이 사랑함, 고향에 갔을 때 베냐민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야곱은 충격을 받고서 절망 중에 죽을지도 모름, 아버지를 죽게 하는 불효를 범할 수는 없음,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음, 유다 자신만 종이 되겠다(희생과 섬김으로 발전하는 따뜻한 형제 우애).

15) 요셉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유다의 감동적인 탄원에 감동/ 형들과 화해할 때가 되었음을 느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서 주위의 애굽 사람들을 물린 채로 자기 정체를 밝히고 한참 동안 운다(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 앞에서 형제들은 침묵: 그가 총리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그가 보복할지 모른다는 생각. 이에 요셉은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말 것을 당부/ 고난의 삶 속에서 얻은 요셉의 위대한 신앙고백(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45:5);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다(7-8절).

16)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복의 성취(12:2-3)/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그 오묘함=롬 8:28(합력하여 선을 이룸); 살전 5:18(범사에 감사); 약 1:2-4(환란 때에도 온전히 기뻐하라). 요셉은 남은 흉년(5년)을 위한 장기적인 대비책의 일환으로 야곱 일가족의 애굽 이주를 추진(9-11절). 비옥한 고센 땅(라암세스/47:11)은 수도 아바리스(소안/시 78:12; 사 19:11; 30:4; 겔 30:14 등)에서 가까움, 요셉이 언제든지 찾아가 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짐. 애굽에서 본 모든 것과 요셉의 영광을 야곱에게 전할 것을 부탁/ 눈물의 해후(12-13절).

17)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에 바로는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 그의 배려와 관심(수레, 곡식과 떡과 양식, 각종 선물, 야곱에게 줄 애굽 특산품[수나귀 10필])은 나라를 구한 요셉의 뛰어난 통치 능력에 대한 포상의 의미를 포함한다(16-23절).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는 부탁(24절; 과거의 거짓 보고 탄로, 책임 소재 문제)/ 요셉에 관한 보고/ 삶의 의욕을 느끼는 야곱(25-28절).

6. 야곱 일가족의 애굽 이주(46-47장)

1) 헤브론(37:14)을 떠나 브엘세바에 머물던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46:1;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려는 목적)/ 브엘세바는 이삭의 거주지(26:23-25)요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떠난 곳(28:10).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약속의 땅 떠남) 애굽으로 가라고 그를 위로 하시면서 네 가지 약속을 주심(46:1-4): (1) 큰 민족(12:2; 18:8), (2) 애굽 길 동행, (3) 가나안 복귀, (4) 장례 주관자는 요셉.

2) 비교: 야곱 일가족의 애굽 이주(46:5-7)와 아브라함의 애굽 피신(12:10-20). 공통점: 기근/ 차이점: 초청 여부, 하나님의 승인 여부(아브라함은 바로를 속인 죄로 쫓겨나다시피 함). 애굽 이주자들의 명단(46:8-27): (1) 레아의 자손 33명(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2) 실바의 자손 16명(갓, 아셀), (3) 라헬의 자손 14명(요셉, 베냐민), (4) 빌하의 자손 7명(단, 납달리)/ 합 70명.

3) 야곱은 레아의 자손 숫자에 포함(46:8, '야곱과')/ 본래 베냐민은 다섯 아들을 낳았으나(민 26:38-40; 대상 8:1-28), 여기서는 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소개=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포함/ 여자들은 통계에서 제외/ 레아의 딸 디나와 아셀의 딸 세라는 통계에 포함/ 손자들은 다 소개하지 않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아셀의 아들 브리아의 아들들만을 소개. 70인역은 애굽 이주인 수를 75명으로 본다(=스데반의 설교, 행 7:14). 신명기 10:22='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하늘의 별 같이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약속을 넘치도록 이루어 주셨음을 강조하려는 완전수=출 1:7).

4) 야곱은 애굽 도착 전에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냄/ 요셉과 야곱의 눈물어린 만남(22년만의 해후, 17세에 팔리고 30세에 애굽 총리, 7년 풍년과 2년 흉년)/ 요셉은 유목민들(자주 애굽 침입하던 아시아 지역)을 싫어하는 애굽인들의 태도를 이용하여 자기 가족이 독립된 지역(고센)에서 살게 하려 함(28-34절).

5) 요셉이 바로에게 일가족이 고센에 와 있음을 보고/ 다섯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 생업이 유목임을 확인/ 고센 체류 요청/ 바로는 고센 정착을 허락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그의 짐승을 주관케 함(요셉의 공헌에 대한 보답, 47:1-6). 야곱과 바로의 상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간의 삶이 본래 나그네(순례자)의 삶이다; 아직 약속의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다(landless existence).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못 미친다=아브라함(175세), 이삭(180세).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겪을 고통을 예견하는 말(47:7-9).

6)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47:7)와 물러설 때(47:10) 두 번 그를 축복함(12:2)=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계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짐/ 요셉이 기근 관리를 통해 애굽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을 베푼 것과 일맥상통. 야곱 일가족의 고센(라암세스) 정착/ 요셉의 식량 공급(47:11-12). 라암세스: 애굽 12왕조의 라암세스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 새롭게 건설한 도시(출 1:11; 민 33:3, 5);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된 곳(출 12:37). 이 도시는 출애굽 시대에 가서야 알려진 이름인데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센을 라암세스로 소개.

7) 기근의 심화/ 네 단계의 곡물 판매 정책: (1)돈으로 사게 함; (2)말, 양, 소, 나귀 등의 짐승으로 사게 함; (3)밭과 몸을 팔아 사게 함=애굽 사람들은 모두 바로의 종이 되고 애굽 전역의 밭들 역시 바로의 소유가 되었으나 제사장들의 밭은 예외; (4)밭과 몸을 돌려주고 씨앗을 주어 수확물의 1/5(20%)을 소작료로 내게 함(토지법)=제사장과 고센의 이스라엘은 예외(47:13-26). 씨앗을 준 일=기근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거나 나일강의 발달된 관개 기술 덕에 파종과 수확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8)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함=요셉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자손 약속의 점진적인 성취)/ 돈, 짐승, 땅, 몸까지도 팔아넘긴 애굽 사람들의 곤경과 대조를 이룸.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고(147세) 요셉에게 장례(막벨라 굴, 23장)에 관하여 마지막 부탁을 함. 요셉의 손을 허벅지 관절 아래에 놓고서 맹세케 함(24:2, 9)=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 때문/ 애굽은 항구적인 거주지가 아님을 강조/ 장례 부탁은 그를 상속자로 지목했음을 의미(대상 5:1-2, 장자권).

7. 야곱의 축복과 죽음 및 요셉의 죽음(48-50장)

1) 요셉은 야곱의 장례 부탁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야곱의 중병 소식을 듣고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는다(48:1-2). 야곱은 임종시의 축복에 앞서 요셉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린다. (1) 베엘에서의 사닥다리 환상 및 땅/자손의 약속(48:3-4). 그 많은 체험 중에서 왜 베엘 체험인가? 하나님 만남의 첫 경험이었고 땅/자손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야곱은 장자권(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2) (2)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고자 한다(48:5). 약속 계승에 있어서 두 아들의 정통성 결여(애굽 출생, 애굽 제사장의 딸 소생)를 메우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라헬의 죽음을 기억한 것(48:7)은 장자권 상속이 라헬의 자손에게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게 됨으로써 요셉은 장자의 몫(신 21:17)을 받게 되었다.

3) 축복받을 자에 대한 확인(48:8-9), 입맞춤과 껴안음, 하나님 은혜 찬미(10절),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48:15). 48:15-16의 축복문에서 야곱은 조상들과 자신의 하나님 체험에서 비롯된 세 가지의 하나님 호칭을 사용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使者)’. 축복문의 내용도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조상들의 이름이 그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고(이스라엘 공동체 편입 의미),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달라는 것(‘이드구’=‘물고기처럼 우글거리게’).

4) 요셉은 야곱의 팔을 정상 위치로 돌리고자 했으나 야곱은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48:5에 이미 예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도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다. 차자 상속의 주제(second-son motif).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인간적인 조건(자격이나 권리)에 매이지 않는다.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무조건적인 은총. 야곱은 땅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후에(48:21, 출애굽 예고)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을 요셉에게 여분의 몫으로 준다고 말한다.

5) 요셉의 두 아들 축복/ 자신의 12아들 축복(1절, 예언적인 축복문). 그러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잇사갈 등은 비난과 저주를 받는다. 르우벤: 빌하와 동침한 일(35:22)로 인하여 장자권 상실(49:3-4). 시므온과 레위: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일(34장)로 인하여 흠여짐의 벌(49:5-7). 실

제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흡수, 독립적인 지파로서의 지위를 상실(수 19:1-9; 신 33장의 모세의 축복에 시므온 지파 누락)/ 레위 지파 역시 다른 지파들 속에 흩어져 산다(수 21장).

6) 유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 힘센 사자에 비유/ 각종 풍요의 약속(49:8-12). 스블론: 처음에 베들레헴 주변에 땅을 분배받았으나(수 19:10-16) 나중에는 해상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시돈 가까이에 있는 북쪽의 바닷가에 정착(49:13). 잇사갈: 양의 우리에 꿰어앉은 나귀처럼 쉴 곳을 좋아하기에 계속 일만 하는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질 것/ 압제를 받아 남을 섬길 것(49:14-15). 단: 비록 규모는 작아도 백성을 정의로 판단할 것/ 뱀이나 독사처럼 공격적일 것(49:17). 49:18: 축복 중간에 있는 야곱의 신앙고백(구원의 확신).

7) 갓: 약탈자들과 강도들의 공격을 방어/ 용감하게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49:19). 아셀: 임금의 수라상을 받을 정도로 번성할 것(49:20). 납달리: 풀어 놓은 암사슴처럼 산악 지대를 누비고 다닐 것(49:21). 요셉: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식물(샘 곁의 무성한 나뭇가지=풍요와 번성)에 비교/ 군사적인 용맹성/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원천)의 복(비옥한 땅), 젖가슴과 태의 복(사람과 짐승의 출산), 장자권의 복(49:22-26, 대상 5:2).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복의 관리). 베냐민: 노력질 잘하고 게걸스럽게 먹는 이리떼 같을 것(49:27, 맹렬한 호전성과 약탈물에 대한 탐욕). 약탈물로 살아가는 끈질긴 생명력.

8) 야곱의 장례 부탁: 약속의 땅인 막벨라 굴의 가족묘(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에 묻히고자 함. 야곱의 죽음은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된다(가족묘 제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조상들과 공유하고 있음과 더불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뜻하며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그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49:29-33).

9) 야곱 시신의 미이라 처리(요셉도 동일, 49:26): 시신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야 했으므로. 시신에 향 재료(방부제)를 넣는 데는 40일 정도 소요. 70일의 애곡 기간=바로의 장례에 준하는 대우(50:1-3). 바로를 위한 애곡 기간은 72일. 모세와 아론을 위한 애곡 기간은 30일(민 20:29; 신 34:8), 사울을 위한 애곡 기간은 7일(삼상 31:13). 요셉은 애곡 기간 직후 자신을 대리한 다른 고위 관리를 바로에게 보내 장례 휴가를 청원(50:4-5): 상중(喪中)에 있는 자는 왕궁 출입을 삼가야 했으므로. 바로는 야곱의 유언에 따른 장례 청원을 허락한다(50:6).

10) 장례 행렬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에 있는 장로(원로)들과 애굽 온 땅에 있는 장로(원로)들, 요셉의 온 집안과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50:7-8).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장례 행렬을 호위. 가나안 사람들조차 놀란 장대한 행렬(50:9). 요단 동쪽 아랏 타작마당에서 재차 애곡(7일). 가나안 사람들이 '아벨 미스라임'('애굽인들의 애곡')이라 이름 지음(50:10-11). 막벨라 굴에 야곱을 매장한 후에 애굽 귀환(50:12-14).

11) 요셉의 형제들은 보복의 두려움을 못 이기고 대리인을 보내 야곱의 유언(?)을 빌어 용서를 구함(50:15-17). 뉘우치는 마음이 담겨 있음. 직접 찾아가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기까지 함(50:18). 요셉은 형제들의 말에 울면서 자신이 역사 주관자(죄인 처벌자=원수 갚는 분, 신

32:35; 롬 12:19; 히 10:30)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과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45:5-8=롬 8:28)를 강조(50:19-20).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기로 약속(50:21).

12) 110세를 산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나셋의 아들 마길에게서 난 아들들도 친아들로 기른다('슬하에서 양육'=입양, 50:22-23). 요셉의 유언: (1)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방문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강조(50:24). (2)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서 매장할 것(50:25). 요셉 시신의 미이라 처리(50:26). 유언의 성취=출 13:19(출애굽)/ 요셉 유골의 막벨라 굴 장사(수 24:32). 한다(신 2:4-5; 23:8).

나침반 바이블
BIBLE